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. 2015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조사한 이래 처음이다.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3631만 10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만 7389명(0.1%)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.매체별로 보면 IPTV 가입자 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하반기 기준 2092만 5902명으로 전체의 57.63%를 차지했다. 지난해 상반기보다 0.54% 늘어났으나 증가세는 갈수록 둔화하는 흐름이다.종합유선방송(SO) 가입자 수는 1254만 1500명(34.54%), 위성방송은 284만 2704명(7.83%)으로 뒤를 이었다.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0.71%, 2.04% 감소했다.점유율도 IPTV는 직전 반기보다 0.36%포인트 확대됐지만, SO(-0.21%포인트)와 위성방송(-0.16%포인트)은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.사업자별 가입자 수는 KT 882만 7392명(24.31%), SK브로드밴드 668만 4857명(18.41%), LG유플러스 541만 3653명(14.91%) 등 순으로 IPTV가 강세를 보였다.SO인 LG헬로비전(361만 9909명·9.97%)과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(284만 2704명·7.83%) 등이 뒤를 이었다.지난해 5월 SK브로드밴드가 처음으로 시작한 기술중립 서비스 가입자는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7만 7825명으로 집계됐다.기술중립 서비스는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 전송 방식 구분을 없앤 것을 뜻한다.과기정통부는 고품질의 기술중립 서비스가 확산할 수 있도록 중소 SO들을 대상으로 기술중립 서비스를 위한 셋톱박스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